

특집을 내면서



바쁜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어느덧 1995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통우연 회지는 창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성장을 위한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들의 보다 열성적인 노력과 통우연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합심된 노력과 성원이 어울려져서 95년에는 더욱 알찬 결실이 회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호를 장식하는 이번 호에는 두개의 소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저궤도위성에 관한 사업 및 기술의 현황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궤도위성사업은 올해에도 꾸준히 뉴스를 만들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KMTC, Dacom, KT 등의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저궤도위성사업에 자본참여가 줄을 잇는 매우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기사가 관련 기술자 및 사업자, 그리고 관심있는 제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번째 소특집에서는 국내의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관련산업은 구미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나 향후 성장성이나 잠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국내 기술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이 소특집의 기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 소특집의 주제는 지속적인 관심사로서 관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나 금번에는 소개하는 차원에서 다루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 수 최 형 진